

광주 스쿨미투 교사들 징계받나

이른바 '스쿨 미투'에 연루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광주지역 일부 교사들에 대한 행정상 감사 절차가 시작돼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결과가 공식 통보된 데 따른 것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제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 교사 10여 명이 1차 대상이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행정상 징계는 좀 더 포괄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혐의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청, 불기소 처분 2개교 12명 대상 1대1 문답 피해자 면담기록 등 검토 후 징계여부·수위 결정

감사절차를 이르면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과 이번엔 기소된 9명은 제외됐다.

감사위 조사 대상은 모두 사립학교 소속으로, A고교 10명, B고교 2명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대법원 판례 검토 작업, 검찰 시민위

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과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 처벌과 행정상 징계는 별개"라며 "당사자들에게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학교에서는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학기 개강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교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A고교 2명과 B고교 7명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기소됐다.

조인호 기자

일자위대 전투기, 훈련 중 추락...전원 구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1대가 20일 오전 훈련 중 바다에 추락했다. 탑승하고 있던 대원 2명 전원은 구조됐으며, 전투기는 실종된 상태다.

NHK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쓰이키(築城)기지 소속 F2 전투기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야마구치(山口)현 인근 해역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중 추락했다.

기체에 탑승하고 있던 자위대원 2명은 오전 10시 10분께 현장 부근 해역에서 각각 간이식 구명보트에 탑승한 채 발견돼 구조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전투기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또 다른 2대의 F2 전투기와 함께 쓰이키 기지를 이륙해 훈련을 위해 야마구치현 해역 상공으로 향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체는 실종된 상태지만 사고 현장 해상에 기체에서 흘러나온 기름띠 등이 형성돼 있어, 당국은 기체가 훈련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자위대 쓰이키 기지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F2 전투기 두 대가 훈련 중 상공에서 접촉해 기체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작년 2월 육상 자위대 소속 헬리콥터 1대가 사카(佐賀)현 주택에 추락해, 타고 있던 대원 2명이 사망했다. 제작년 10월에도 항공자위대 헬기가 시즈오카(静岡)현 야마다에 추락해 대원 4명이 사망했으며, 이어 8월에는 해상자위대 헬기가 아오모리(靑森)현 야마다에 추락해 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자위대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英 축구경기 중 "입장료 너무 비싸다" 시위

영국에서 축구경기 도중 일부 관중들이 너무 비싼 입장료를 비난하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리버풀FC(LFC)와 FC 바이에른(FCB) 뮌헨 간의 경기 중 일부 관중들이 대형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플래카드에 빨간색으로 크게 적은 구호는 "어웨이(경기)터렛: LFC는 48£(파운드), FCB는 55£" "탑육은 한계가 없다(THE GREAT KNOWS NO LIMITS)!" "20은 많다" 등이었다.

이 플래카드 시위는 FC 바이에른 팬들이 벌인 것으로 "혹독한 입장료는 48파운드인데, 원정팬 입장료는 왜 그 보다 비싼 55파운드냐"는 주장이다.

바이에른 팬들이 시위를 벌이자, 리버풀 팬들도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나타냈다고 CNN은 전했다.

구호 중 "20은 많다"는 영국 잉글랜드 축구시포터스연맹이 최근 원정팀 서포터스에게 입장료를 20파운드만 받는 캠페인을 시작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축구클럽들이 앞으로 3시즌동안 입장료를 30파운드로 계속 고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 리조트 눈사태에서 매몰자 4명 구조

스위스의 인기 스키 리조트인 크랑몬타나 마을에서 19일 오후(현지시간) 눈사태가 발생해 스키어들이 휩쓸려 간 뒤, 구조대가 신속한 구조작업을 벌여 지금까지 4명의 매몰자를 눈속에서 빼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조된 사람들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이다.

구조대는 지금까지 구조한 4명에 이어 다른 매몰자들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다. 250명의 구조대원을 중에는 의료진과 경찰, 군 병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8대의 수색 헬기와 10여마리의 수색견들이 크랑몬타나 마을 뒷 산인 플레노 모르트 봉 일대의 눈 속을 수색중이다.

칸다허르 슬로프의 눈사태로 무거운 눈덩이 속에 깔려있다가 구조된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벨레 지역 경찰대의 크리스티안 바론 대장은 말했다. 다른 3명은 주로 "표면적으로만" 찰과상 등의 경상을 입은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눈사태는 약 84미터 길이의 눈사태가 골짜기 스키 슬로프 전체를 뒤덮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깊은 눈 속에 아직도 매몰된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구조대는 모든 수단을 다 해서 눈속을 수색하고 있다고 경찰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직 몇 명이 눈속에 남아있는 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크랑몬타나 리조트는 제네바 동쪽 180km 거리에 있는 스키리조트로 이날 오후 2시 30분 눈사태가 나면서 이 곳 전체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리조트 경영사인 CMA는 밝혔다.

공동 생활권 나주-광주 수년째 버스노선 갈등

나주 농어촌버스와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노선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정위원회가 나주교통 999번 버스노선 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정위는 버스노선 갈등 해결방안으로 제3차 용역 발주를 통한 의견 조율, 나주교통 등 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나주와 광주의 버스노선 갈등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이번까지 네 번째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나주교통 999번 버스의 광주지역 승차자 정류소를 현재 15곳에서 39곳으로 확대해 달라는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반면 광주시는 농어촌버스의 광주지역 운행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농어촌버스의 운행 거리를 현행 30km에서 5km로 축소해 달라며 맞대응했다.

나주와 광주는 인접지역으로 공동 생활권에 해당하지만 버스노선을 놓고 수 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에 광주와 나주가 대중교통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스업체가 수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나주시와 버스 업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용역 발주와 상생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우리 졸업했어요 20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 모를 던지고 있다.

영암 목동마을에 기업형 돈사 5곳 허가 신청...주민 반발

1000명 서명운동·군청 앞 1인시위·집회 개최 등

영암의 한 시골마을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신청이 잇따라 신청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과 군청 앞 1인시위,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데 이어 대규모 집회를 갖고 돈사신청을 반대하고 나섰다.

화산면 돈사반대추진위원회는 20일 오전 영암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목동마을에 추진 중인 돈사신청을 불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집회에는 화산면 주민을 비롯해 인근 미암·삼호읍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화산면 목동마을에

추진 중인 기업형 돈사신청을 불허해 줄 것을 영암군청에 촉구했다.

이용에 화산면 이장단장은 "목동마을 인근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암 최대의 친환경단지"라면서 "마구잡이로 들어온 돈사에서 오폐수가 흘러내린다면 10년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암군 농민회 정운갑 회장도 "돈사문제는 더 이상 목동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영암지역 전체의 문제다"면서 "기업형 돼지 축사 등에 의한 환경훼손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목동마을과 인근 상월마을

에는 돈사 5곳과 우사 3곳 등 모두 8곳의 축사가 신청허가를 신청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데 이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탄원서를 영암군에 제출했다.

고재호 목동마을 이장은 "목동마을은 지금 심각한 환경재앙 앞에 놓여 있다"면서 "하나라도 목소리로 돈사 신청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은 축사 신청과 관련, 허가에 앞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계 획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담에는 검진기관이 응접하시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장애, 발달장애, 영민 민력군